

MBC 구성원들이 사장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박성제

안형준

허태정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MBC를 둘러싼 거센 외부의 압박 속에서 향후 3년간 MBC를 이끌 차기 사장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차기 사장 후보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과 비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검증 받아야 합니다.

특히 차기 사장과 함께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 MBC를 만들어갈 MBC 구성원과의 소통은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장 선임 과정에서 MBC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반영되는 절차는 전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사내 8개 직능 단체(총 1,234명 소속)와 함께 MBC 구성원들이 사장 후보자들에게 묻고 싶은 내용을 취합했고, 이를 10개로 추려 질의를 드립니다.

후보자들의 답변은 시민평가단 절차에 앞서 조합 노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구성원들의 질의에 후보자의 깊이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응답 접수 : mbcunion2012@gmail.com
- 제출 기한 : 2023년 2월 15일(수) 18:00
- 답변 공개 : 2023년 2월 17일(금)
- 참여 단체 : 경영인협회, 기자회, 디자인협회, 방송기술인협회, 아나운서협회, 영상기자회, 촬영인협회, PD협회
(※ 가나다 순)

■ 공영방송의 공정성

MBC 뉴스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상승했다는 여러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양극화된 인식이 나타나는 이유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십니까? 또 이를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공영방송 MBC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 공영방송의 독립성

MBC에 대한 외부의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후보자께서 MBC 사장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또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MBC를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특히 MBC 사장 선임 구조와 관련해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영방송 MBC의 위상

공영방송 MBC의 위상에 대한 다양한 외부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지원은 공영방송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제도적 규제는 공영방송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영방송 MBC의 정체성과 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확립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콘텐츠 경쟁력 강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타 채널, OTT 등 경쟁 매체들과 비교해 본사의 콘텐츠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면서 경쟁력을 높일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직 문화 및 인사 혁신

현재 MBC 내 일부 부문에서는 필수 인력은 부족하고 비정규직이 크게 늘고 있으며, 외주 제작 비중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재 확보는커녕 인력 유출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고, 세대, 부문, 직종 등에서 경직된 조직 문화가 나타나면서 MBC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MBC의 조직 문화 개선 및 적재적소 능력에 따른 인사 원칙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있으십니까?

■ 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후보자께서는 내부적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외부적으로는 장애인, 노인, 빈곤층,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공영방송의 책임을 어떻게 구현하실 생각이십니까?

■ 경영 환경 개선

2023년 광고 매출 감소 등 경영상황 악화가 예상됩니다. 미디어 환경을 고려했을 때, 향후 MBC의 매출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MBC를 둘러싼 비대칭 규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정책적이거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차기 사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노력하시겠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 드라마·스포츠 등 경쟁력 강화

회사는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드라마본부의 스튜디오화와 스포츠 중계업무 자회사 이관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드라마의 가시적인 경쟁력 회복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스포츠 중계 역시 인건비·임차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주관방송사업(HB)과 수익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이를 극복할 묘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 MBC 그룹의 상생

MBC는 본사뿐만 아니라 16개의 계열사와 6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 네트워크는 MBC 그룹의 중요한 정체성이자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 요소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역 네트워크의 강점을 살리면서 수익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들을 발전시켜 나갈 복안이 있으십니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 UHD 방송 전환

2017년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하고 5년이 지난 현재, 직접 수신율이 매우 저조하고 시청자들의 관심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ATSC 3.0 UHD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지상파 매체 위상 및 수익 제고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MBC를 비롯한 국내 방송사 특히 지역 네트워크의 경우 UHD 의무편성 비율 준수를 위한 막대한 시설 투자 비용을 걱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UHD 방송 서비스의 나아갈 방향과 정책 개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